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7호 [루게 제25055호] 주제104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내이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째로 맡겨주시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열혈청춘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리면서 백두전주에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지난 9월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물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였으며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붉은기전통이 창조된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피끓는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한다!>, <청년들이여!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청년들이여!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면저 다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가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에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화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고 주변 산들에는 <청년중시사상 만세!>, <청년강국>, <백두청춘>이라는 구호와 표어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봉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경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상원 량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 인

청춘의 기상과 용감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며 거연히 솟아오른 발전소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청년들이 장장 70년의 승리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 선물이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은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산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사건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3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가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 청년동맹 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4 번 으 로 계 속

